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용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독서 지도안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



책 소개

“아이들 마음이 죽어 가고 있어.
마음발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섭게 변해 가는 아이들
가시 돋친 아이들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
열네 살 삼미리의 간절한 싸움이 시작된다!

암울한 시대, 뾰족한 가시로 방어막을 세우는
십 대의 마음 문을 여는 판타지 성장소설

-

어느 날, 아기를 점지하고 돌아온 삼승할망은 석해산 꼭대기에 마음씨 하나를 심었다. 씨앗은 일곱 개로 나뉘더니 마음발을 이루었고, 삼승할망은 그곳을 담당하는 발장들을 세웠다. 기쁨, 화 등 여섯 명의 발장과 사랑을 담당하는 한 명의 샘물 발장. 일곱 명의 발장들이 정성껏 마음발을 가꾸자 세상에는 그 마음을 품은 아기들이 태어났다. 아기들에게는 저마다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 ‘몽고반족’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보름달이 뜨던 밤, 부엉이가 나타나더니 불타는샘물발이 잿빛으로 변하고 날개를 쏘고 간 꽃들에 굶은 가시들이 돌아났다. 세상에 어둠이 드리우고 만 것이다. 그 순간 삼승할망은 몽고반족의 딸 ‘미리’를 구출해 인간 세계로 오고, 이곳에서 직접 마음발을 돌보며 아이들을 점지하고 태어날 수 있게 도우며 살아간다.

평소 삼승할망은 인간 세계에서 ‘삼이’라는 이름으로 꽃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기에, 미리 역시 자신이 열네 살의 평범한 중학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머리 양쪽에 불통하게 혹은 같은 게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큰 병에 걸린 거라 여기던 미리. 그러나 곧 자신이 몽고반족의 마지막 씨앗이고, 세상을 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편 저승할망은 자신이 새로운 생불왕이 되기 위해서 백은병원 원장과 그의 아들 금도를 이용하여 삼이가 점지한 아이들을 죽여 없애기 시작한다. 과연 미리와 삼이는 이들의 계락을 눈치채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표지로 읽는 이야기의 시작	4
2	독서 중	프롤로그로 미리 보는 세계관	6
3	독서 후	배경 속 세계를 상상하고 이미지로 표현하기: 배경 분석	8
4		사건의 흐름 따라가기: 사건 분석	10
5		인물 들여다보기: 인물 분석	11
6		핵심 단어로 정리하는 이야기	13
7		생각을 넓히는 독서 질문	15
8		마음발장이 되어 토론하기	21
9		가시 돌진 혐오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까	24

2.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대상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표정, 자세, 주변 환경을 근거로 이야기의 배경,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3. 뒷표지에 '불타는샘물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불타는샘물밭은 무엇일까요?

4. 이 책의 장르는 무엇일 것 같나요? 판타지, 디스토피아, 성장소설 등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

5. 표지를 바탕으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예측해 봅시다.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먼저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 봅시다. 프롤로그에는 작품의 배경, 주요 사건의 단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읽으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생각해 보고, 아래 질문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꽃피우기 시합에서 당당히 이기고 삼승할망이 된 명진국 따님 아기는 하늘에서 알록달록 작고 예쁜 꽃씨들과 크고 까만 마음씨 하나를 얻어 와 석해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예쁜 꽃씨들을 산 중턱의 넓은 평원에 심고 가꾸었다. 그곳은 어느새 사람을 생기게 하는 생불꽃부터 죽게 하는 멸망꽃까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꽃들이 가득 피어나 서천꽃밭을 이루었다.

아기를 점지하고 돌아온 첫날, 석해산 꼭대기 마음밭에서도 싹을 틔웠다. 서천꽃밭에 심은 꽃들과 달리 딱 하나뿐인 마음씨는 땅에 닿는 순간 일곱 쪽으로 갈라져 일곱 개의 싹으로 돌아났다. 싹은 쑥쑥 자라고 퍼져 나가 일곱 개의 마음밭을 이루었다.

마침내 마음밭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잘 익은 열매가 짹짹 갈라지더니 검푸른 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 점의 위치와 모양은 저마다 달랐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밭에서 기쁨, 화, 슬픔, 두려움, 미움, 욕심, 사랑을 돌보고 가꾸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날 아기들의 마음이었다. 깃부, 화낭, 슬푸, 두렴, 미울, 욕마 등 여섯 명의 발장이 각각 밭을 맡아 돌보고 족장은 사랑을 담고 있는 일곱 번째 밭, 불타는샘물밭을 맡았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족장은 발장들을 거느리고 불꽃이 넘실대는 샘물을 손수 떠서 여섯 개의 밭에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 밭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건 당연했다. 본디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오직 씨앗을 준 이와 심은 이만이 볼 수 있었다.

세상에는 발장들이 가꾼 마음을 품은 아기들이 태어났다. 아기들 엉덩이엔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몽고반점’이라 불렀다. 삼승할망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몽고반족’이라 명했다.

어느 날, 부영이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매일 밤 슬금슬금 발장들을 찾아다니며 알 수 없는 말을 속삭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울과 화낭, 욕마는 반란을 모의해 두렴과 슬푸를 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는 동안 깃부와 족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 의심 같은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다. 재단 위 붉은 보주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족장은 일렁이는 불꽃 속에서 샘물을 떠 꿀꺽꿀꺽 마셨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새해맞이 제의가 끝나 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보주를 향해 허리를 굽히던 족장이 앞으로 폭, 고꾸라지고 만 것은. 환호성은 곧 비명이 되어 울려 퍼졌다. 쓰러진 족장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불타는샘물밭에는 어느새 불꽃이 사그라지고 샘물도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두 그루의 나무…… 달빛 속으로…….”

족장은 마지막 말을 채 맺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검은 구름이 보름달을 삼키고 있었다. 보주도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그림자 하나가 샘물 속으로 풍덩 떨어졌다.

까만 어둠 속에서 부영이가 나타났다. 먹이를 놓친 듯 한참이나 샘물 위를 맴돌더니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밭 위를 날아다녔다. 날개가 쏙고 간 꽃들에 굵은 가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프롤로그 중에서

1.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삼승할망, 깃부, 화낭, 슬푸, 두렴, 미울, 욕마, 족장과 같은 발장들, 그리고 부영이다.

2. '서천꽃밭'은 어떤 곳인가요? 프롤로그에 제시된 표현을 근거로 공간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서천꽃밭'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불꽃부터 죽음을 의미하는 멸망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명을 만들어 내는 근원적인 장소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3. '삼승할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자료를 조사하여 역할과 상징성을 함께 설명해 보세요.

'삼승할망'은 아기를 점지하고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는 존재로, 생명을 만들어 내고 운명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는 꽃씨와 마음씨를 심어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 내는 존재로 나타나며, 생명의 시작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4. 프롤로그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프롤로그에서는 일부 발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울, 화냥, 욕마가 중심이 되어 두렵과 슬픔을 끌어들이고, 결국 족장이 의식을 진행하던 중 쓰러져 죽게 된다. 이로 인해 불타는 샘물이 변하고 마음밭에도 가시가 돌아나며 혼란이 시작된다. 프롤로그에서는 일부 발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울, 화냥, 욕마가 중심이 되어 두렵과 슬픔을 끌어들이고, 결국 족장이 의식을 진행하던 중 쓰러져 죽게 된다. 이로 인해 불타는 샘물이 변하고 마음밭에도 가시가 돌아나며 혼란이 시작된다.

5. 프롤로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나 표현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 단어가 눈에 띄는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가시, 가시는 장미와 같은 꽃에서 돌아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로,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위험과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 같아 눈에 띄었다.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에는 서천꽃밭, 미리와 삼이네 집, 금도네 집, 병원 등 다양한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배경을 하나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선택한 배경을 중심으로 아래 활동을 수행해 봅시다.

1. 배경 선정

→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세요.

미리와 삼이의 집

이유: 신비로운 공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2. 묘사 구절 필사하기

→ 해당 공간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찾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세요.

61쪽, 미리와 삼이는 2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살았다.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면 작은 옥탑 마당이 나타나고 그 왼쪽 끝에 미리네 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평상 하나가 놓여 있고, 올 풀린 빨랫줄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몸이 무거운 듯 늘어져 있었다.

알루미늄 새시로 된 현관문을 열면 오른쪽에는 방 하나가, 정면으로는 좁고 길쭉한 주방이 이어졌다. 주방 끝에는 커다란 미닫이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누가 문을 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삼이가 그 문을 열면 그곳에는 넓디넓은 꽃밭이 펼쳐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온갖 빛깔의 꽃들이 뽀뽀이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누군가 후, 하고 입바람을 불기라도 한 듯 따듯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면 꽃들은 대답이라도 하듯 출렁출렁 몸을 흔들었다.

3. 공간 특징 정리하기

→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공간의 모습, 분위기,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 **공간의 모습:**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평상과 늘어진 빨랫줄이 있는 소박한 공간, 주방 끝에 있는 미닫이문, 그리고 문을 열면 펼쳐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꽃밭
- **분위기:**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
- **특징:** 같은 공간 안에 '현실(옥탑방)'과 '환상(꽃밭)'이 공존함, 미닫이문을 여는 사람에 따라 다른 세계가 열리는 구조, 꽃밭은 생명력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치유의 공간

4. 이미지 생성하기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해당 공간을 이미지로 표현해 봅시다.

→ 색감, 분위기, 사물,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생성하기.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나요? 이야기의 흐름을 떠올리며,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사건의 흐름 따라가기> 활동 방법

- 사건은 세세하게 나열하기보다, 이야기 흐름을 바꾸는 핵심 사건 중심으로 정리해 보세요.
- 각 단계(도입-전개-위기-절정-결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인과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 사건을 정리한 뒤,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야기의 흐름	일어난 사건 정리하기	인과 관계 정리하기 →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도입		
2. 전개		
3. 위기		
4. 절정		
5. 결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인상 깊게 남은 4명을 선택한 뒤, 각 인물의 성격과 특징, 주요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와 성장을 아래 표에 정리해 봅시다.

<인물 들여다보기> 활동 방법

- 필사할 때는 단순히 옮겨 적기보다, 왜 그 문장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일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연결해 보세요.
- 갈등은 누구와의 갈등인지(외적), 마음속 고민인지(내적) 구분하여 생각해 보세요.
- 인물의 변화는 '달라졌다'에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까지 써 보세요.
- 한 인물만 따로 보지 말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성격과 변화가 드러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인물	인물의 성격과 특징 → 인물의 핵심 성격과 특징을 2~3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인물의 성격과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필사하기 → 해당 성격이 잘 드러난 문장을 찾아 그대로 옮겨 봅시다.	인물이 겪은 사건 → 누구와 / 왜 / 어떤 내적·외적 갈등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인물의 변화와 성장 → 사건과 갈등을 겪으며 인물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나요?
백은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인 '금도'를 아주 많이 사랑함. •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음. •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심쟁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쪽, 아이들이 원장실로 들어서자, 백은이 벌떡 일어났다. 원장실은 유난히 어두웠다. 백 원장이 서둘러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맞았다. 결혼 9년 만에 간신히 얻은 유일한 핏줄이었다. • 96~98쪽, 저승할망 저승이가 의사 백은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또다시 아이들을 죽여 없애라고 했다. 남부럽잖게 땡땡거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꾀었다. 급기야, 일이 잘되면 다시 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써 주겠다고도 했다. <p>백은은 동아줄 같은 저승이의 손을 잡고 그 대가로 돈과 명예를 함께 얻었다. (중략) 특히 7, 8개월 차에 다급히 찾아온 산모의 불룩한 배를 마주할 때면, 그는 묘한 흥분에 휩싸였다.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생명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감상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숨을 거두는 일은 짜릿한 환희였다.</p>	<p>백은 원장은 저승이와의 약속으로 아기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던 중 저승이가 미리의 보주를 빼앗기 위해 일을 벌인 날, 금도가 버드나무에 깔려 죽을 위기에 처하며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다.</p>	<p>금도가 삼이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자, 백은 원장은 그동안의 일을 속죄하고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p>

지금까지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의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작품의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1. 핵심 단어 선정하기

→ 작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 단어를 10개 이상 선정하고, 각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핵심 단어	핵심 단어가 작품 속에서 언급된 부분 필사하기	핵심 단어로 선정한 이유
사랑	155쪽, “어머니가 알려 준 생불왕! 그래, 내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 그날만 기다렸지. 그때가 되면 예쁜 아기들을 점지하고 돌보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더군. 진짜 생불왕이 되고 싶었는데, 인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신이 될 수 있었는데…….”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저승이와 백은처럼 오히려 뒤튼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반면, 미리와 삼이의 온전한 사랑은 대한이를 되돌리고 불타는샘물마저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랑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판단하여 선정했다.

2. 줄거리 요약하기

→ 선정한 핵심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활동 방법

- 인물, 사건, 배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핵심 단어는 줄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중요한 장면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선택해 활용해 봅시다.
- 줄거리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봅시다.
-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와 관련된 독서 질문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1. 아이들의 목뒤에 있는 ‘굵고 노란 가시’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야, 얼룩소! 저 새끼가 안 그랬다는 증거 있어? 뭘 믿고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네가 그런 거냐?”
 “아하! 둘이 싸고 흠친 거였나? 양파마트에 중고로 팔려고.”
 태구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그 순간 미리의 오른쪽 눈을 덮은 커다란 점이 잠깐 꿈틀거렸으나 더는 움직임이 없었다.
 태구가 어깨를 툭 치자, 옆에 서 있던 수호도 거들었다.
 “맞네, 맞아. 이제 답이 나오네.”
 그러자 태구를 시작으로 너도나도 신발들을 집어 던졌다. 미리가 열린 몸을 낮추어 대한이를 감쌌다. 신발은 미리의 등과 머리를 때리고 데구루루 바닥을 나뒹굴었다.
 아이들 목뒤로 굵고 노란 가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 13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굵고 노란 가시’는 실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상징한다.

지도 tip 9차시 활동과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삼신할망 ‘삼이’가 건네는 꽃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그럼 간다!”
 “잠깐! 할망이 진짜 지켜 줄 거야? 나, 믿어도 돼?”
 삼이는 배에 바짝 입을 대고 조용히 물었다.
 “아가, 나한테 꽃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무슨 색 받았지?”
 “빨간색.”
 “빨간색은 무슨 꽃?”
 “오래 사는 꽃.”
 “거봐, 거봐! 요즘 100세 시대다 뭐다 해서 빨간 꽃 부족한 거 알아, 몰라?”
 “.....알긴 알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검은 꽃이라도 받은 것처럼 왜 그런 걱정을 해? 넌 그냥 얼른 나와서 건강하게 쑥쑥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걱정은 뚝!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이제 진짜 간다!”
 잠시 후, 분만실 밖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예쁜 꽃이 또 하나 피어났다.

- 23~24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① 삼신할망인 ‘삼이’가 아기들에게 주는 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삼신할망 ‘삼이’가 아기들에게 주는 꽃은 아기의 삶과 운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꽃의 색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빨간 꽃은 ‘오래 사는 꽃’으로 건강하고 긴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축복을 의미한다.

② ‘예쁜 꽃이 또 하나 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삼이가 아기에게 꽃을 주는 장면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담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예쁜 꽃이 또 하나 피어났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자체를 꽃에 비유하여 소중함과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다.

3. 금도의 요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별 모양의 요요가 금도 손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금도는 작년 전국 주니어 요요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 은빛으로 빛나는 플라스틱 요요는 금도의 손과 한 몸인 듯 자유자재로 실을 타고 넘나들었다. 그러다 불쑥 허공으로 날아오르기도 했다. 그때마다 구경하던 아이들은 “오~” 하고 일제히 탄성을 질렀고, 요요의 다섯 날개는 교실 책상 여기저기에 자잘한 상처를 남기고 돌아왔다

- 25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금도의 요요는 단순한 놀이 도구를 넘어, 금도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요요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교실 곳곳에 상처를 남기는 모습은, 금도가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또한 아이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 요요는 금도가 또래 집단에서 주목받고 우위를 차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요요는 금도의 능력과 동시에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함께 상징하는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꽃바다를 볼 수 있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며, 인간 중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특징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작! 병아리다!”

미리는 비명을 질러 대며 병아리를 품에 안았다. 그러고는 꽃바다에 나가 있는 삼이를 향해 소리쳤다.

“어디서 났어?”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었다. 삼이가 넓은 꽃바다에 나가 있어도 목소리는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으니까. 하지만 지금 미리는 흥분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아까 오다가 주웠어. 여기 못 오게 해. 꽃 다 쪼아 먹으면 안 되니까.”

“애가 거길 어떻게 가?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데.”

“동물은 돼. 볼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 사람만 못 보고 못 오는 거지. 갓난아기만 빼고. 그러고 보면, 사람이 제일 무능력해.”

- 66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① 동물은 볼 수 있지만 인간은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은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기운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인간은 성장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강해지면서 순수한 감각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이러한 존재를 쉽게 보지 못하게 된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대한이는 꽃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3쪽 참고)

대한이가 꽃바다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몽고반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몽고반점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몽고반점의 아이'라는 표식이자 특별한 능력과 연결된 상징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대한이는 이 표식을 지닌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꽃바다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다음 글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죽어 가는 것이란 어떤 상태이며,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야. 아이들 마음, 그 마음이 죽어 가고 있어. 마음발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거야.”
언젠가 우물 속을 보여 주며 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물을 통해 본 마음발은 온통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굵은 가시를 바짝 세우고 뒤엎켜 서로의 줄기를 찢러 대는 그들은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이빨을 드러낸 뱀처럼 보였다.

- 88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① “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감정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도 ‘죽음’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살아는 있지만 타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올바른 마음을 잃은 상태를 또 다른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작품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죽어 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작품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죽어 간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한다. 서로를 상처 입히고 공격하는 모습은 마음이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준다.

③ 아이들의 마음이 죽어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작품 속 상황과 연결 지어 설명해 봅시다.

소설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는 ‘마음발’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고 가시가 돋아나게 되었는데, 이는 마음발의 가시들로 인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의심하고 미움과 분노를 키우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결국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죽어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6. 금도와 아이들이 '나무'라는 말만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들이 말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금도가 깨어났다. 금도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나무'였다. 그저 나무 두 그루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을 되찾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나무'라는 단어만 반복해 말했다. 사람들은 화단에 있던 나무들을 떠올렸다. 그날 아이들은 교묘하게도 나무에 가려져 있어 찾는 데 더 애를 먹었다. 나무만 아니었어도 더 빨리 발견했을 거라며 사람들은 결국 화단에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 버렸다.

- 99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금도와 아이들이 '나무'라는 말만 반복한 이유는, 사건 당시 가장 강하게 인식된 대상이 '나무'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말한 '나무'는 단순한 화단의 나무가 아니라, 미리의 머리에서 돌아난 뿔(나무)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화단의 나무로 오해하여 모두 베어 버렸다.

7. 이 글에서 말하는 꽃의 '놀라운 힘'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힘이 '작디작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미리가 놀란 눈으로 삼이를 바라보았다. 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미리는 조심스레 두 손으로 새싹이를 안고 불을 비볐다. 뽕송뽕송한 솜털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러자 또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분명 지옥에 있었는데 어느새 천국이였다. 이 작은 생명이 미리에게 기적을 일으켰다.

언젠가 삼이가 살며시 일러 준 비밀을, 미리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봐라. 이 꽃들은 썩어 없어진 몸에 뼈를 붙이고, 살을 돋우고, 피를 돌게 하는 꽃들이야. 생명을 탄생시키고 죽은 목숨마저 되살리다니, 꽃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녔지. 하지만 그 놀라운 힘도 결국 작디작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

이제야 미리는 삼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 101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이 글에서 꽃의 '놀라운 힘'은 생명을 만들어 내고, 죽은 생명마저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 주는 존재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힘이 '작디작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말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큰 힘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즉, 모든 생명은 크기와 상관없이 소중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8.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여섯 가지 마음을 모두 품어 주는 마지막 마음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생각해 봅시다.

미리는 말을 더 잊지 못했다. 그대로 이불에 고개를 묻고 영영 울었다. 삼이는 낮에 마주했던 대한이 눈빛이 떠올랐다. 가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건 이제 시간문제였다.

“그렇게 되는 거야? 모두…… 아이들 마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대한이처럼? 뉴스에 나온 아이들처럼?”

“아니.”

삼이는 큰 숨을 한 번 내쉬며 미리 이마에 붙어 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러고는 미리 볼을 감싸 쥐 채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야.”

“지옥?”

“응. 그런데 괜찮아.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너, 세상에서 오직 미리 너만 할 수 있어. 다른 누구도, 아무도 못 해. 그게 네가 이곳에 온 이유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고. 우린 잠시 이곳으로 몸을 피해야 했지만, 숨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아무것도 모른 채 무섭게 변해 가는 아이들, 안타깝게 죽어 가는 아이들……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네 가슴속에서 샘솟아야 했으니까. 너희 아빠가 가꾸던 마음밭처럼.”

“아빠의 마음밭?”

“응. 인간의 여섯 가지 마음을 모두 품어 주는 마지막 마음 하나.”

“…….”

“사람을 왜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그게 무슨 마음인데?”

삼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미리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미리의 가슴께를 꼭 누르며 씩 웃었다.

“알잖아~”

- 131~132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① 작품에서 말하는 ‘인간의 여섯 가지 마음을 모두 품어 주는 마지막 마음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작품에서 말하는 마지막 마음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그 마음이 왜 ‘사람이 사람이라 불리게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사랑은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미움, 욕심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모두 품고 이해하게 만드는 마음이다. 사람은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관계를 이어 가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랑이 있을 때 타인을 배려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작품에서처럼 무너져 가는 마음밭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9. 미리는 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을까요?

미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 순간 현재의 목뒤에 있던 가시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 있는 것을.

삼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의 마음이 대한이를 다시 돌려놓은 것처럼?”

미리도 걸음을 멈추고 삼이를 보며 말했다.

“응. 그래서 이모, 나 이제 안 돌아갈 거야. 나, 용이나 신 같은 거 말고 사람 될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줘.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

삼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오래오래 미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 172쪽,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 중에서

미리는 자신의 마음이 대한이의 가시를 작아지게 했던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타인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는 ‘용’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즉, 미리의 선택은 사람의 마음, 특히 사랑이 지닌 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가시' 문제를 감정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토론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감정을 대표하는 발장이 되어, 친구들(청소년)의 특정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탐색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고민해 봅시다.

활동 방법

- ① 7명씩 한 조를 구성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토론을 준비한다.

기쁨	화남	슬픔	두려움	미움	욕망	죽장 (총괄 발장)
기쁨	화	슬픔	두려움	미움	욕망	사랑

- ② 각 감정의 발을 맡은 발장들은 청소년이 겪는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감정의 입장에서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가시'를 설명하고 원인을 탐색한다.
 ③ 가시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각 감정의 발장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④ 죽장(총괄 발장)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조의 결론을 도출한다.

▶ 친구들(청소년)의 문제 상황 1

지현이는 평소 한 친구와 매우 친하게 지내며 학교생활을 함께해 왔다. 쉬는 시간에도 늘 붙어 다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자주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현이는 그 친구를 이유 없이 피하기 시작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함께 있게 되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도 특정 친구를 일부러 제외한 채 다른 친구들과만 대화를 이어 가며, 그 친구가 소외되는 상황을 만든다. 주변 친구들은 지현이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를 알지 못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쁨(기쁨)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계에서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을 수 있다.
화남(화)	서운함이나 억울한 감정이 쌓여 분노로 표현된 행동일 수 있다.
슬픔(슬픔)	관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상처받은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두려움(두려움)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먼저 거리를 두는 방어적인 행동일 수 있다.
미움(미움)	특정 친구에 대한 질투나 비교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을 수 있다.
욕망(욕망)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친구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을 수 있다.
죽장(사랑)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러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 친구들(청소년)의 문제 상황 2

현서는 SNS에 자신의 일상 사진이나 글을 자주 올리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게시물을 올린 뒤에는 '좋아요' 수와 댓글을 계속 확인하며 반응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금세 기분이 가라앉고, 자기 자신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한다. 때로는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과장되게 꾸미거나, 일부러 잘 보이는 모습만 골라 올리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현서는 SNS 반응에 따라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쁨(기쁨)	
화남(화)	
슬픔(슬픔)	
두려움(두려움)	
미움(미움)	
욕망(욕심)	
죽상(사랑)	

▷ 친구들(청소년)의 문제 상황 3

용주는 과제나 해야 할 일을 자주 미루는 편이다. 처음에는 '조금 이따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끝까지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된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옆드려 있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변 친구들이 참여를 권해도 "귀찮아", "어차피 못 해"라고 말하며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학교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쁨(기쁨)	
화남(화)	
슬픔(슬픔)	
두려움(두려움)	
미움(미움)	
욕망(욕심)	
죽상(사랑)	

▷ 친구들(청소년)의 문제 상황 4

경민이는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지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 친구의 말 한마디나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내며 거친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상황도 경민이의 반응으로 인해 분위기가 금세 불편해지곤 한다. 친구들은 점점 눈치를 보면서 경민이와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경민이의 감정 표현 방식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깃부(기쁨)	
화남(화)	
슬픔(슬픔)	
두려움(두려움)	
미움(미움)	
욕망(욕심)	
죽장(사랑)	

▷ 친구들(청소년)의 문제 상황 5

지민이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하거나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하며 대화를 이어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싶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이는 스스로 관계를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누군가 다가와도 거리를 두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지민이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깃부(기쁨)	
화남(화)	
슬픔(슬픔)	
두려움(두려움)	
미움(미움)	
욕망(욕심)	
죽장(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설의 내용을 더듬어 가며 생각해 봅시다.

1. 소설 속 '가시' 다시 돌아보기

① 작품에서 '가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작품 속 '가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처와 분노,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② '가시'가 돌아난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가시가 돌아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보인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 작품 속 혐오 표현 살펴보기

『열네 살에 세상을 구하라니』에서 드러난 가시는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중에서 행동으로 드러낸 폭력 외에, 말로 상처를 주는 혐오 표현을 함께 찾아봅시다.

혐오 표현이란?

혐오 표현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낮추거나 배제하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을 말한다.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에 대해 "원래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거나, 차별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은 혐오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이나 일상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이를 이유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면,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집단 전체로 확대되고, 결국 사회 전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표현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우리 학교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국가인권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행

① 13쪽, “야, 얼룩소! 저 새끼가 안 그랬다는 증거 있어? 뭘 믿고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네가 그런 거냐?”

② 36~37쪽, “청소도 멀쩡한 사람 좀 써. 저런 늙은 할망구 말고. 돈도 엄청 많으면서.”

등등.

3. 말속의 ‘가시’ 혐오 표현, 왜 생기고 무엇을 남기는가?

일상에서 우리는 혐오 표현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과연 단순한 착각일까요? 말속에 숨어 있는 ‘가시’, 혐오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①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이미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장난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따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② 혐오를 사회에 퍼뜨리는 혐오 표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혐오 표현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불안감이나 위축된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혐오 표현이 반복되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화된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 사회 통합과 민주적인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4. '가시'를 멈추는 방법

'가시'가 돋친 혐오 표현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미리와 삼이처럼 부정적인 마음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시'가 돋친 혐오 표현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는 말과 태도를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심코 사용하는 말속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표현이 없는지 살펴보고, 부정적인 표현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바꾸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친구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왜 문제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바르게 고치도록 돕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